

* 일본 역사의 시작

빙하기 ⇒ 일본열도 형성

⇒ 조몬¹⁾ 시대(B.C.11,000 ~)

⇒ 야요이²⁾ 시대(B.C.300 ~ 서기 3세기)

⇒ 야마타이 국(히미코와 위나라의 교섭, 3세기)³⁾

⇒ (왜 5왕의 사신 파견, 5세기)

고분 시대(4~6세기, 일본 전역에 주로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고분이 조성; 다이센 고분)

⇒ 야마토 왕조

4세기 초 긴키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형성된 야마토 정권은 5세기 무렵 왜 5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각 지역 세력들의 연대를 전제로 성립된 호족 연합체제의 성격을 띠었다.

기존 호족세력들을 제압하고 명실상부한 유일지배세력이 등장하는 시기를 오늘날 대체로 게이타이(繼體) 천황이 즉위한 해(507년, 6세기)로 이해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 세습 왕조가 현재의 천황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야마토 왕조의 등장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야마토 정권은 일본열도를 지배하기 위한 방책으로 ①국조제(國造制), ②부민제(部民制), ③둔창제(屯倉制), ④우지·가바네 제도(氏姓制度) 등을 시행했다.

①국조 : 야마토 조정에 복속된 토착 호족, 일종의 지방관

복속의 징표로 국조의 자제와 여식이 왕궁에 올라와 봉사

②부민제 : 국가 소유의 백성을 관리하는 제도. 일반 농민들은 호족들에게 그 관리를 위임

③둔창제 : 조정 소유로 귀속된 토지를 장악·관리하는 제도

④우지·가바네 제도(氏姓制度, 씨氏=우지, 성姓=가바네) :

우지 ~ 씨족 또는 일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상의 계보나 동족 의식을 공유하며 하나의 동족 집단임을 자처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단위체

우지의 이름(氏名)을 나타내는 방법 : 자신들의 거주지, 조정에서의 직무 이용

예) 소가 씨(蘇我氏) / 마사부 씨(馬飼部氏)

가바네 ~ 야마토의 대왕(천황)이 수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칭호

오미(臣), 무라지(連), 기미(君), 아타이(直), 오비토(首) 등

야마토 조정의 대왕이 우지(일족) 집단에게 하사함으로써 그들이 대왕에게 복속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정치적 의의가 있음. 일부의 지배자 집단만이 우지·가바네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는 이것은 지배자임을 나타내는 징표

1) 조몬(縄文) :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처음 고고학을 전수한 미국의 동물학자 에드워드 S. 모스가 오모리 유적에서 최초로 '줄무늬(縄文)'가 있는 그릇을 발굴하여 이것을 '조몬식 토기'로 명명했다.

조몬식 토기는 농경이 수반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출현한 점이 이례적이다. 장기간 농경문화가 결여된 점이 신석기 문화로서의 조몬 문화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조몬인이 풍부한 식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냥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 열매 등의 채집 덕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채집뿐만 아니라 재배에 의한 원시적 농경도 하였다고 한다.

2) 야요이 : 야요이식 토기. 벼농사 농업, 청동기·철기 보급,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공동체인 '구니(國)' 출현

3) 『삼국지』 '왜인전'

* 아스카 문화와 소가 씨

게이타이 천황을 중심으로 신흥왕조가 성립하자 모노노베 씨(物部氏, 무라지 그룹)가 급부상하였다. 6세기 이후에는 오미(臣) 그룹의 씨족들도 세력을 확대해나갔는데 그 대표자는 **소가 씨(蘇我氏)**였다.

그런데 소가 씨와 모노노베 씨는 긴메이(欽明) 천황 때 **백제에서 전래된 불교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소가 씨는 불교 수용을 주장했지만 모노노베 씨는 수용을 거부했다. 게다가 요메이(用明) 천황 사후에 전개된 차기 왕위 계승 분쟁으로 양 세력은 무력 항쟁에 돌입했다.

이 항쟁에서 소가 씨가 승리하고 소가 씨는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다(587년). 소가 씨는 정치적 보좌역으로 **쇼토쿠 태자(聖德太子)**를 세웠는데 이렇게 성립한 정권을 '**소가 씨 정권**'이라고 부르며 **645년** 몰락할 때까지 야마토 조정은 소가 씨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6세기 중엽 백제로부터 전래된 불교를 중심으로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는데, 그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의 육조(六朝) 문화도 왜국에 전래되었다. 불교 신앙은 초창기에는 지배층의 종교로 수용되었으며 지배층 개개의 씨족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씨족적 차원의 사원을 '우지데라(氏寺)'라고 한다. 당시 주요 사원으로는 소가 씨의 우지데라인 아스카데라(飛鳥寺), 쇼토쿠 태자가 발원하여 건립된 시텐노지(四天王寺)·호류지(法隆寺) 등이 있다.

* 쿠데타와 전쟁의 7세기

왜국에서는 **645년 을사의 변**이 발생하여 소가 씨가 타도되었다. 고교쿠 천황은 즉시 정변의 주역인 고토쿠 천황에게 양위했다. 고토쿠 천황은 국정을 채신하고 친당·신라 노선을 추구했다. 이때의 개혁을 **다이카 개신(大化改新)**이라고 한다. 개신 정권의 핵심 세력은 고토쿠 천황을 주축으로 한 **나카노오에 황자**와 이들을 연계한 핵심 인물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등이었다.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는 훗날 덴지 천황으로부터 후지와라 씨의 성을 하사받아 **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되어 후지와라 씨의 시조가 된다.

고토쿠 천황은 즉위 후 연호를 '다이카'라고 하고 이듬해인 **646년 '개신의 조'**를 발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황과 나카노오에 황자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그 결과 나카노오에 황자가 집권하였고 다시금 친백제 노선이 대두했다. 고토쿠 천황이 죽자 나카노오에 황자는 자신이 바로 즉위하지 않고 655년 자신의 어머니인 옛 고교쿠 천황을 다시 왕좌에 앉혔고 그 녀는 사이메이 천황이 되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자 백제 부흥 운동세력이 일어나 왜국에 원병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은 사이메이 정권은 백제에 원군을 보내기로 했다. **663년 백제 부흥군과 왜국의 원군이 나당 연합군과 백촌강(白村江)에서 격돌했는데 결과는 왜군의 참패였다.** 667년 나카노오에 황자는 왕도를 아스카에서 오미로 천도하고 이듬해 **덴지 천황**이 되었다.

* 천황의 국가 '일본'의 성립

'일본(日本)'이라는 오늘날의 국호는 **덴무(673-686)·지토(690-697) 천황의 시대에 성립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본 군주의 호칭인 '**천황**'이 처음 사용된 것도 목간을 비롯한 당시의 실물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덴무 시대이다.

또한 천황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덴무 천황의 시대였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덴무 천황이 **진신(壬申)의 난(672년)**을 통해 극적으로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671년 병상의 덴지 천황은 차기 왕위 계승자로 내정되어 있던 자신의 동생 오아마 황자 대

신 자신의 아들 오토모 황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오아마 황자는 즉시 승려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목숨을 건져 아스카의 남쪽인 요시노에 은거할 수 있었다.

덴지 천황의 사후 오토모 황자를 중심으로 한 오미의 조정 세력은 오아마 황자를 암살하여 했으나 이 음모는 누설되어 도리어 오아마 황자의 봉기를 초래했고, 그 결과 오아마 황자가 승리했다. 672년 6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거병한 오아마 황자는 불과 한 달 만에 승패를 결정지었는데, 이것이 고대 일본 최대의 내란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진신의 난이다.

오아마 황자는 673년 아스카로 돌아와 기요미하라노미야에서 즉위하여 **덴무 천황**이 되었다.

백제 멸망 이후 전개된 왜국의 전시체제로부터의 탈피와 국내적 지배체제의 정비라는 두 가지 요소가 덴무 시대의 주요 과제였다. 이에 천황은 강력한 군주 권력의 확립을 토대로 위기 관리와 체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덴무 천황은 당과의 관계는 단절 상태로 두면서 신라와는 밀월 관계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외교 관계를 전제로 왜국 내부의 지배체제 정비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러 시책을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정비해나갔다. 임관과 승진에 관한 제도 및 48계의 새로운 위계제를 시행하여 관인 질서를 정비했다. 그리하여 중앙 호족들은 기존의 호족적 성격에서 점차 국가의 녹봉에 의지하는 귀족 관인으로 변모했다. 684년에는 유명한 ‘팔색(八色)의 성(姓)’⁴⁾을 새로이 제정했다. 또한 681년 덴무 천황은 제기(帝紀) 및 상고제사(上古諸事)를 정리하는 등 국사의 편찬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율령의 제정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686년 덴무 천황은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황후(지토 천황)가 뒤를 이었다. 지토 천황은 덴무 천황이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했다. 689년 아스카키요미하라령(飛鳥淨御原令)을 시행했다.⁵⁾ 690년 아스카 지역의 북방에 **후지와라쿄(藤原京)**를 조영하기 시작하여 694년에 천도함으로써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후지와라쿄는 중국의 도성제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도성이었다.

‘왜’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한 배경에는 ‘아라히토가미(現人神)’인 천황에 의해 표상되는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다.

* 고대 율령체제의 확립

1. **중국 당 건국(618)** : 균전제, 조용조제 중심을 율령법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완성
일본 : 우지·가바네 제도를 지배체제의 근간으로 했으나

다이카 개신(645) 이후 **공지공민제(公地公民制)**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구상

다이카 개신 : 소가 씨 타도. 고토쿠 천황은 국정을 쇄신하고 친당·신라 노선 추구

646년 ‘개신의 조’

이때 발표된 칙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황족을 비롯한 호족(豪族)의 토지와 인민의 사유화를 폐지하고 이를 국유로 전환한다. 둘째,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하고 국방·교통 제도를 정비한다. 셋째, 호적을 작성해 중국은 균전제(均田制)와 같은 반전수수법(班田收受法)을 실시한다. 넷째, 이제까지의 부역을 폐지하고 새로운 전·호별 조세 제도를 시행한다. 이 개신은 당의 율령제도를 도입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정치기구를 구축하고 토지·인민을 국가가 직접 다스리려고 한 것이다.

4) 기존의 호족층이 가지고 있던 오미(臣)·무라지(連) 등의 가바네(姓) 질서를 정비한 것으로, 새로 제정된 것은 마히토(真人)·아손(朝臣)·스쿠네(宿禰) 등 여덟 종류의 가바네였다. 특히 천황·황실과 관계가 깊은 씨족에게는 마히토와 아손 등 상위의 가바네를 주었다.

5) 호적제도, 지방제도, 반전수수법 등을 제도화한 최초의 본격적인 법전이라고 하나 이것도 현존하지 않는다. 율이 제정되었다는 기술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불분명한 점이 많다.

- * **공지공민제** : 황족과 호족이 개별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인민을 국가 소유로 하고 그 대신 이들에게 식봉(食封)을 지급

2. 율(律) : 형법에 해당

영(令) : 행정조직과 인민의 조세, 노역, 관리의 복무규정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조항 규정

3. 672년 진신(壬申)의 난 이후 즉위한 덴무 천황은 강력한 권력을 배경으로 황족을 중용하여 천황 중심의 정치를 행하고 중앙집권적 국가 건설에 박차

- 본격적인 율령 : 다이호 령(大寶令, 701년), 요로 령(養老令)
- 율령에 따른 중앙관제(2관 8성제) :
태정관(太政官, 행정 최고 기관), 신기관(神祇官, 궁중의 제사 담당),
중무성, 식부성, 치부성, 민부성, 병부성, 형부성, 대장성, 궁내성
- 천황의 지위나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엄격한 시험제도를 두지 않고 유력자의 자제를 시험 없이 채용
~ 호족세력이 여전히 정치의 중심

(참고)

당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제도가 3성6부제이다. 3성은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尚書省)이고, 6부는 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로 나누었다.

6부 제제는 한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제도이니, 당 제도의 특징은 3성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수의 내사성(內史省)이 중서성으로 바뀐 것일 뿐, 수가 확립해놓았던 3성6부제와 큰 차이는 없다.

당대에는 지방관리도 중앙에서 파견했다. 3성6부로 이뤄진 통치조직과 지방 통치제제인 주·현 체제로 인해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그렇다고 당이 철저하게 황제 중심의 체제를 실현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수 이래로 과거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관료 임명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황제가 좀 더 강력하게 관료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다음 시대인 송(宋)에 들어서라고 치는 경향이 강하다.

-더 읽을 거리-

율령

동아시아에서 율이 처음 등장한 나라는 기원전 4세기 무렵 전국 시대의 진이었다. 진의 율을 진율(秦律)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을 통일한 한은 진율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서진 시대에 이르러 '율'에 '영(令)'자를 붙인 '**율령(律令)**'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영도 율과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뜻이다.

율은 금기를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이고, 영은 백성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행정법이었다.

진율과 한율에서는 형법과 행정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지만, 서진 시대에 이 둘이 분리되면서 율령의 체계가 갖춰졌다. 그 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율령이 개정됐으며, 수

와 당을 거치면서 체계가 완비됐다.

진과 한 이후 중국 왕조는 율령을 통해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유지했다. 율령은 황제의 지배가 미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적용됐다. 율령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했는데, 시대와 동떨어진 조항은 폐기됐고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추가됐다. 그럼에도 율령 체계가 완비된 당에서부터 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된 원칙도 있었는데, 바로 유교 윤리였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열 가지 흉악한 범죄 중 다섯 가지는 황제의 권위와 국가 통치 질서에 도전한 범죄이고, 다른 네 가지는 가부장 중심의 가족 질서를 침해한 범죄였다. 모두 유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윤리와 관련된 범죄였다.

통치자들은 왜 율령에 유교 윤리를 도입했을까? 법은 원래 군주 중심의 지배 체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지배 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법에 의한 통치를 철저히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제국 진이 14년 만에 멸망하면서 법치만으로는 백성을 통치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고민 끝에 한의 통치자들은 법에 유교 윤리를 적용했다. 부모와 자식,윗사람과 아랫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자발적 복종의 마음을 백성들이 법에 대해서도 품게 된다면 반발하지 않고 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이 후대에 계승되면서 유교 윤리는 율령 편찬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덴무 덴노는 직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아스카의 궁궐에 신하들을 모아 놓고 율령을 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689년에 일본 최초의 영(令)인 아스카키요미하라령이, [701년에는 율과 영을 모두 갖춘 다이호 율령](#)이 반포됐다.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초 사이에 덴노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개혁이 추진됐다. 전국적으로 호적을 작성하고 토지·수취 제도와 관료 조직을 정비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기구를 개편했다. 개혁 정책은 율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호적은 호령에 따라 작성됐고, 관료 조직은 관위령과 직원령에 따라 개편됐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당령을 토대로 율령을 만들어 통치 체제의 기초를 확립했다. 일본의 율에는 당률의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많았다. 영을 만들 때에는 현실에 맞게 수정했는데 기본적인 틀은 역시 당령을 따랐다. 농민들은 전령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고 부역령에 따라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는데, 이는 당령의 전령과 비슷하다. 반면, 당률에서는 유교 윤리의 영향으로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했지만, 유교 사상이 일상에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고 근친혼이 일반적이던 일본에서는 율에 이 규정을 넣지 않았다.⁶⁾

6) 신주백, 김형열, 박삼현, 오민영, 윤대영, 한기모, 『처음 읽는 동아시아사 1』, Humanist, 2016, pp.145-151.